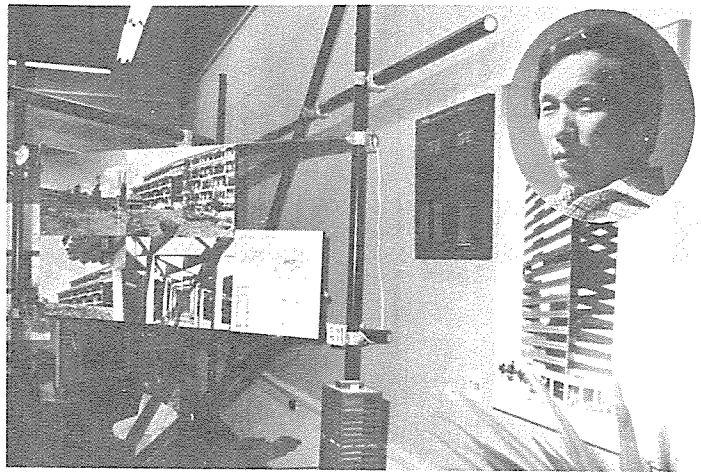


“하나를 이루는 공동의 작업”



『용마루 모임』—

仁荷大学校工科大学 建築科출신
들이 모여 만든 동인 그룹의 이름
이다.

그리고 바로 이 모임이 지난달
2일부터 6일까지 옛새동안 종로
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芸總画廊
에서 첫번째로 용마루모임 建築作
品展을 펼쳤다.

“우리의 作品을 과시하려는 하
나의 전시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에
서 作品展을 연것은 아닙니다.

처음에는 在學生들과 함께 합동
으로 作品展을 계획했으나 쉽게 되
지가 않더군요. 그래서 우리회원
들 作品가운데 25점의 作品만으로
전시회를 갖게 됩니다. 후배들
을 위한 교육적효과에 치중한 전
시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
보다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 이라
는 우리 모임의 뜻을 펼쳐 보이기
위한 계기마련이구요.”

본회 회원이기도 한 용마루모임
의 리더인 趙成龍회장(우원건축연
구소 대표·건축과 3회출신) 은
이번 전시회가 개인전이 아니고 같
은 學校를 나온 同門出身들이 모
여 벌인 잔치로서 후배들에게 선
배들의 활약상도 보이고 더불어 그
들로부터 作品에 대한 의욕을 북
돋게 하기위한 하나의 시도였다고
말한다.

용마루모임이 처음 시작되기는
지난 75년 7월에 發起되면서부터
였다. 10여명정도가 모여 첫 모임
을 가졌던것이 5, 6년이 지난지
금은 50여명의 큰 식구를 거느리
게 되었다.

또 하는 일도 폭이 넓어져 同人
誌도 發刊키로하고 研究發表會도
개최하며 在學生들과 공동으로 전
시회도 열기로 작정을 하는등, 비
록 他大學의 비슷한 모임들에 비
해 出艱은 좀 늦었으나 알맹이있
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.

이번 전시회도 단순한 平面的展
示方式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
로 作品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
構造物을 이용한 立体的展示로 여
니 건축작품전에 비해 動的이고 能
動的인 전시장분위기를 자아내게
했다.

“공동전시의 목적도 개인적인
作品의 모습을 제각기 보여주는
방식에서 탈피해서 공동테마에 의
한 作圖法의 통일등 새로운 방법
을 도입해서 하나의 줄기를 이루
어 보려는 시도를 年次的으로 추
진하는 것”이 용마루모임의 계획
이라고 趙회장은 말한다. 이러한
시도는 또 용마루모임 내에서만이
그치는 것이 아니라 在學生들까지
포함해서 공동보조를 취해 분명한
한개의 흐름을 보여주는 의도이

기도 하다. 그래서 해마다 두어
차례씩 선배회원들이 모교에서 特
講형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들과
학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고.

“여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야
겠더군요. 다른나라의 경우는 건
축학도들의 실력이 대단한것 같아
요. 우리도 그네들에게 뒤지지 않
으려면 보다 깊이있고 넓게 공부
해야 할겁니다”

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
열렸던 국제건축가연맹(U·I·A) 대
회에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던
趙회장이 구라과등지를 돌아보고
느낀 그곳 건축학도들의 정도를
이렇게 말한다.

따라서 개인적인 努力도 중요하지
만 보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합리
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, 그리
고 건축이라는 행위가 총체적이고
복합적인 작업으로 이루어 진다는
점에서도 協力, 協助에 의한 協調
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.

용마루 모임의 회원들은 절반가
량이 설계사무소에서 현업에 종사
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시공회사
등에 근무하고 있다.

건축에의 정열과 집념이 하나의
모임으로 뭉쳐져서 또다른 의식의
구조체가 형성되었다고나할까 —.
더욱 빛나는 良質의 作品으로 昇
化하려는 作業이 진행되면서 ...